

# 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

## - 백원국 차관, “충청권 교통혁명 시작, 5조원대 건설투자로 경제 활력 제고”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4월 24일(수) 오전 CTX(충청권 광역급행철도) 출발역인 정부대전청사역 현장점검을 실시하고, 제2회 CTX(충청권 광역급행철도) 거버넌스 회의(대전시청)에서 사업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.

\* (CTX 거버넌스) CTX 추진을 위한 정부-지자체-민간기업-지원기관 협의체 (2회 CTX 거버넌스 참석자) 백원국 2차관,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,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, 세종시 이승원 경제부시장, DL E&C 어준 본부장, 삼보기술단 이정용 사장, 국가철도공단 손병두 건설본부장, 한국교통연구원 박지형 부원장

□ 백 차관은 “CTX는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(x-TX) 선도사업으로 선정하여,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를 약속했다”며,

○ “4월 25일 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여 민생토론회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겠다”고 밝혔다.

□ 백 차관은 “CTX는 GTX와 동일한 최대 시속 180km의 급행열차를 투입하여 대전-세종-충북의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충청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”이라며,

○ “시점인 대전정부청사역부터 종점인 청주공항역까지 65km의 대규모 사업으로, 건설기간 6년간 5조원 이상의 민간자본과 국비 등을 투자하여 충청권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, “선도사업인 CTX의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백 차관은 “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, 지자체, 민간, 공공기관이 윈 팀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”며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
□ 한편 DL E&C는 4월 23일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였다. 국토부는 4월 25일 민자적격성 조사를 KDI에 의뢰할 예정이며,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'28년 착공, '34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
2024. 4. 24.

국토교통부 대변인

## 참 고

## CTX 사업 주요 내용(최초제안서 기준)

### □ 사업노선 및 주요 거점간 이동시간

사업노선	주요 거점간 이동시간
	<p>← 41.0분 →</p> <p>대전청사    세종청사    충북도청</p> <p>← 15.5분 →    ← 25.5분 →</p> <p>대전청사    세종청사    조치원    서울</p> <p>← 77.5분 →</p> <p>← 85.0분 →</p> <p>← 95.5분 →</p>

### □ 주요 사업내용(최초제안서 기준이며, 실시협약 체결 시 변동 가능)

- (총사업비) 약 5조 원(민간투자비+국비+지방비)
- (사업방식) BTO+BTL 혼합형 민간투자방식(6년 건설, 40년 운영)
- (총연장) 광역급행 : 64.4km 운행, 지역간 : 163km 운행
  - 정거장 위치·개수는 민자적격성 조사, 협상을 거쳐 실시협약 시 확정되나, 도시 간\* 고속 이동으로 도시 내 주요 거점에 역 설치 계획
  - \* 대전↔세종, 세종↔청주 구간은 최고 속도(180km/h) 운행으로 표정속도 기준(80km/h) 충족 가능
- (운행계획) 광역급행 : 운행횟수 96회/일, 시격 <sup>침두</sup>7.5분, <sup>비침두</sup>15분  
 지역간 : 운행횟수 36회/일, 시격 30분
- (운행차량) 광역급행 : EMU-180(지하철 좌석 배치), 4칸 1편성  
 지역간 : EMU-180(좌석형 좌석 배치), 6칸 1편성

### □ 향후계획 : '28년 착공 → '34년 개통 추진